

영암군, '라떼타임'으로 기존·신규 공직자 소통

영암알기 현장문화체험하며 서로의 차이 인정...이해 높여 하반기 대거 임용되는 신규 공직자에게 크게 확대할 계획

"라떼는 말이야"로 공직사회가 소통과 화합의 전기를 마련한다.

영암군이 10월부터 민선 8기 혁신 시책으로 '라떼타임-멘토·멘티'를 진행한다.

라떼타임은 매년 50~80여 명의 신규 공직자 임용 추세에 맞춰, 기성-신규 공직자 간 차이를 존중하고, 상호 이해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으로 함께 월 1회 영암알기 현장문화체험을 떠나는 내용.

영암군이 21일까지 10일간 체험에 참가할 공직자를 모집한 결과, 40명이 넘는 공직자가 신청했고, 신청자는 근무기간이 1년 미만부터 30년 넘는 직원까지 다양했다.

영암군은 이렇게 신중한 공직자들을 기존-신규가 어울릴 수 있도록 조별로 편성해 현장 문화체험에 나서기로 했다.

체험 과정에서 세대 간 인식과 경험의 차이가 조율되고, 서로의 아이디어가 공직 전반의 지혜로 바뀌길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영암군은 47개 명소를 체험처로 발굴해 지역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직자들의 일터인 영암을 제대로 알리기로 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무엇보다 현장체험을 재미있게 꾸며서 영암을 알고 즐기는 가운데 선후배 공직자 사이에 정이 생기고, 그 정이



공직사회에 활력을 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군은 올해 하반기 대거 임용될 것으로

보이는 신규 공직자에게 라떼타임 체험을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영암=조대호기자



영광군, '해양쓰레기 저감 우수사례' 최우수 기관 선정

영광군은 해양수산부 주관 "2023년 해양쓰레기 저감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시군구 단위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어 지난 21일 열린 "제23회 국제 연안정화의 날" 기념식에서 최우수 기관표창 및 시상금 1,5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해양쓰레기 저감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처음 참가하여 다른 시군구와 달리 말로 하는 정책이 아닌 실행할 수 있는 사업 "해양쓰레기 실명제 마대 보급사업"이라는 다른 시군과는 차별화된 사업을 시행하여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시행중인 "해양쓰레기 실명제 마대공급사업"은 어민들 스스로 폐어구 등 어업활동 중에 발생하는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지 않고, 어촌계명이 적힌 해양쓰레기 전용 마대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는 사업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내년부터 마대에 인쇄된 문구 수정 및 해양쓰레기에 몸살을 앓고 있는 해양 동물의 사진 등을 첨부하는 등 단순히 쓰레기만 담는 마대가 아닌 해양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홍보용 기능도 담을 수 있도록 하여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광=서희권기자

대한민국 국향대전 입장권 10% 할인 판매 개시

관광객 위한 특별 혜택 '눈길'

함평군이 오는 10월 20일부터 11월 5일까지 열리는 '2023 대한민국 국향대전' 입장권을 10% 할인해 사전 판매한다.

사전 입장권은 인터넷 티켓링크에 접속

후, 티켓링크 메인화면 검색창에 '2023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검색하면 10% 할인된 금액으로 예매가 가능하며 인터넷 판매기간은 오는 9월 25일부터 10월 19일까지이다.

또한 함평축제관광재단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 구매하면 인터넷과 같이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 가능하나 인터넷 판매기간과 달리 9월 25일부터 10월 13일까지 판매한다.

함평군민은 군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소지하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함평축제관광재단(☎061-320-2238)으로 문의하면 된다.

함평=김광훈기자

"목포관광은 내게 맡겨라"...목포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 교육

전국(장애인)체전·목포항구축제 대비 해설 역량 강화 위한 교육 실시



목포시가 문화관광해설사 소양교육을 통해 가을철 관광객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 18일 목포미식문화갤러리-해관 1897에서 문화관광해설사 28명을 대상으로 관광 홍보 및 해설 역량 강화를 위한 소

양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소양 교육은 추석 명절을 비롯해 제104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목포항구축제, 문화재야행 등 가을철 관광 성수기를 대비해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을 강화하

고 해설서비스 제공자로서 갖춰야할 해설 기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전국(장애인)체전 및 문화재 야행 행사, 목포 항구 축제 등 향후 축제 프로그램 제대로 익히기 ▲목포 근우회(여성운동단체) 역사 인식 교육 ▲성인지 역량교육 등 전문성을 갖춘 해설 서비스와 관광 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진행되었으며, 관광객에게 감동을 주는 활동을 주문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문화관광해설사는 단순한 해설과 안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포 관광의 얼굴이다"면서 "관광마인드를 함양한 이들이 오는 10월 열리는 전국(장애인)체전과 목포항구축제를 비롯해 가을 대표 문화예술 행사에서 맹 활약해 2천만 관광객 유치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관광해설사 지원을 희망하는 20인 이상 단체관광객은 시 문화관광홈페이지에서 방문 7일전까지 미리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시 관광과(061-270-8430)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기동취재본부

무안군, 남악 대죽도근린 공원에 야간경관조명 설치 보행자 안전 확보·산책로 조성

무안군이 지난 12일부터 삼향읍 남악 대죽도근린공원에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산책로 만들기에 적극 나섰다.

남악 대죽도근린공원은 유아숲체험원으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으며 주변에 주민 주거지역이 밀집해 있어 산책 이용률이 높은 곳이다.

지난 2월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오룡선근린공원과 대죽도근린공원 내 산책로에 야간경관조명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휴식 및 활동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며, 7가지 색 혼합 조명등을 설치하여 시각적인 즐거움을 더해 주었다.

또한 대죽도근린공원 둔지에 코스모스 파종을 하여 가을에 아름다운 경치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번 경관조명 설치로 주민들이 자주 찾는 산책로 안전 확보는 물론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산책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무안=이기성기자



신안땅콩 기계화 수확 시작 땅콩 전용 생분해성 멀칭비닐 사용

신안군은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인 자로도 신안땅콩이 기계화 수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땅콩 수확 농가들은 친환경농업을 실현하고, 고령화에 따른 농작업 간소화를 위해 생분해성 멀칭비닐을 전면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수확 전·후 비닐 제거에 대한 부담도 적고, 땅콩 수확기가 지나간 자리에는 온전한 비닐을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의 생분해성 비닐 분해 정도에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올해 땅콩 기계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농가들을 대상으로 수확기와 탈곡기 시연을 했으며, 손으로 수확하고 일일이 꼬투리에서 줄기를 제거하던 기존 방식에 비해 수확기를 이용하면 하루 1ha 정도, 탈곡기는 최소 인원 3명으로 1.3ha 작업이 가능하게 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땅콩 수확 중의 손실을 줄이고, 기계 보급을 확대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지만, 신안땅콩 기계화 재배를 위해 앞장서 농촌 일손 부족 해결과 소득 증대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안=이덕주기자

아세요?
한수원이요즘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